물의 두 얼굴 – 소중한 물, 무서운 물

글 ___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장

우리는 자연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용하기만 하였지 원상태로 되돌려 주는데 인색 하였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가 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자제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중한 물에 대하여

우리 일상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은 물에 대한 배려이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 갈 수가 없다. 또 물이 있어도 문화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양이 풍부하지 않으면 많은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되고, 전염병에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이 부족하면 산업과 농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명과도 같은 자원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인간 중심으로 물 사용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하천은 메마르고 오염되어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중한 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가정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절수형 세탁기, 수도꼭지 등 각종 절수형 기기를 사용하고, 세탁은 한꺼번에 하며, 각종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허드렛물은 버리지 않고 재사용 하는 등 우리가 물을 마구 쓰는 습관만 고친다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정부 차원에서도 누수율을 저감하고 도수(盜水)를 단속하고, 계량기의 불감수량을 방지하는 것 등이 시급하며, 산업체에서도 폐수를 처리하여 재이용하거나 법이 정한 수질로 하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용하기만 하였지 원상태로 되돌려 주는데 인색하였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가 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자제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서운 물에 대하여

물은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생명수이지만, 큰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물 문제의 모든 근원은 강우량에 있다. 필요한 양보다 적게 내리면 가뭄이 되고, 필요 이상의 양이 내리면 홍수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

비가 필요한 때에 적당히 내려주면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시도 때도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양으로 내린다. 그리고 내린 강우

는 하천을 따라 인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지 않고 무심히 흘러가기 때문에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물이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가뭄과 홍수는 자연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면 지표면이 다져지고 식물들의 뿌리는 더욱 더 땅속 깊이 착근되어 생명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열매는 달고 견실해져 번식에 유리하게 된다.

지난 여름 태풍 '매미'와 같은 홍수는 자연계가 극복하여야 할 적자생존의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약한 뿌리와 가지를 가진 식물은 제거되어 간벌의 효과를 주게 된다. 홍수는 온 국토와 하천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여울과 소를 만들어 수생 생물들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범람원에 새로운 토양을 퇴적시켜 기름진 옥토를 제공한다.

이처럼 인간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온 가뭄과 홍수가 자연에는 많은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에 자연의 순기능을 역기능이라 치부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입고 하늘을 원망하지만, 원망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재해의 순기능에서 오는 혜택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을 과신한 나머지 자연의 순리를 어기면서 지나치게 자연에 도전해 왔던 것이 오늘날 자연재해의 화를 자초한 것이다. 결국, 자연 현상은 우리에게 피해도 주지만 해결 방법도 동시에 제공한다. 다만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다짐에 대하여

물에 관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에 관한 종교적 규범, 선언적 규범, 생태학적 이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념들은 현 세대의 생활 규범으로 미래를 위한 절제, 청결, 배려, 공생의 삶을 추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물에 대한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를 제시하자면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이 버리자'라 하고 싶다.

과거 우리는 흔한 것에 대한 비유를 '물 쓰듯이 한다'라고 하였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물이 흔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비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물을 소중하게 여겨, 아껴 쓰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물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소중한 물'이라는 것은 물이 생명과 재화 창조의 한 가운데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현 세대에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는 절제를 의미한다.

'아껴 쓰고'는 아껴서 남는 물을 신규 수요처에 제공하여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여력을 주고, 하류 주민과 생태계에 물의 양적인 배려를 해주는 생명존중사상을 의미한다.

'깨끗이 버리자'는 사용한 물을 잘 처리하여 하천에 되돌려 줌으로써 하류 주민과 생태계에 대한 물의 질적인 배려를 해주는 생명존중사상을 의미한다.